

호동왕자 서사의 근대적 재현 양상 연구

유인혁*

1. A.D. 1935, 호동왕자의 (재)등장
2. 윤백남, 이국취미로서의 역사
3. 이태준, 역사서사의 식민지적 양의성
4. 유치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남성성의 회복
5. 글쓰기와 과거의 축조

국문요약

본 연구는 근대 이후 호동왕자의 서사가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12세기에 『삼국사기』에 처음 소개되었는데, 현재 TV 드라마, 영화, 소설, 희곡 등 다양한 갈래에 걸쳐 재생산되고 있는 대중적이며 민족적인 서사이다. 흥미로운 점은 『삼국사기』를 제외한 근대 이전의 문헌 속에서 호동왕자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호동왕자는 1935년에 이르러 윤백남에 의해 최초로 문학적으로 재현되었으며, 비로소 현재와 같은 대중성을 갖게 되었다. 즉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근대에 들어와 발견(명)된 ‘전통’의 표상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윤백남을 필두로 이태준의 『왕자호동』, 유치진의 『자명고』로 이어지는 글쓰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의 성격들을 주조했다. 윤백남은 정사(情死)의 모티프를 삽입하여 낭만적 연인으로서의 호동의 모습을 만들어 냈고, 이태준과 유치진은 낙랑을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으로 설정함으로써 민족(국가)주의적 컨텍스트를 삽입했다. 이 두 양상 모두 『삼국사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위 작가들에 의해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삽입된 성격들은 각 텍스트들이 생산되었던 시기의 사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회·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윤백남의 경우 과거를 노스탤지어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근대적 미의식을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태준의 경우 총동원체제를 (반)내면화하는 식민지 지식인의 사유체계를 보여주고 있고, 유치진은 해방 공간 속에서 역사적 인물을 통해 민족의 남성성을 상상해내는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렇게 서로 다른 맥락 속에서 소환되고 전유된 호동의 표상들이 모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호동왕자’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호동왕자, 낙랑공주, 유치진, 윤백남, 이태준, 역사, 노스탤지어, 민족주의, 남성성, 야담, 역사소설, 역사극)

1. A.D. 1935, 호동왕자의 (재)등장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삼국사기』의 「고구려본기」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 호동왕자는 옥저 땅에서 사냥을 하다가 낙랑왕 최리를 만나게 되고, 그의 딸인 낙랑공주와 혼사를 맺었다. 호동은 고구려로 돌아가며 낙랑공주에게 낙랑의 신기인 자명고를 부술 것을 요구하고, 낙랑공주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고구려의 낙랑 침공을 돕게 된다. 호동은 후에 왕의 애정을 시샘한 의붓어머니의 모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익숙한 호동왕자 이야기의 뼈대이다.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고구려가 낙랑군을 멸망시킨 313년 이래 오늘날까지 근 1,700여 년 동안 구전되고 쓰여지고 읽혀”¹⁾진, 우리 서사문학의 소중한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다. 호동왕자는 20세기 들어 TV 드라마, 영화, 동화, 만화, 연극 등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 안에서 재생산되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인기는 이 이야기가 『춘향전』이나 『홍길동전』처럼 한국인의 전통적이며 대중적인 텍스트로 자리를 잡은 증거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1,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제로 호동왕자 서사가 꾸준히 전승되어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삼국사기』가 편찬된 12세기 이후 서사문학

1) 이명희,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적 요소의 만남」, 『왕자호동』, 깊은샘, 1999, 299쪽.

안에서 호동왕자는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18세기에 안정복이 저술한 『동사강목』에 그 기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삼국사기』에 실린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당시의 야담집이나 잡기에서도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 들어와서는 신채호가 1931년부터 「조선상고사」를 『조선일보』에 연재하며 호동왕자를 소개했는데, 역시 『삼국사기』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인다. 1910년대와 20년대에 걸쳐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등 과거 무인들의 전기가 앞 다뒀 발간될 때에도 호동의 이야기는 주목받지 못했다.

호동왕자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문학’적인 형식을 취하기 시작한 것은 1935년의 일이다. 이 해 윤백남은 『월간야담』에 「정열의 낙랑공주」와 「순정의 호동왕자」 두 편의 야담을 발표했다. 차례로 1942년에 이태준이 『매일신보』에 「왕자호동」을 연재하기 시작했으며, 1948년에는 유치진이 『자명고』를 출간했다. 불과 십여 년 사이에 장르를 달리하는 네 편의 작품이 만들어진 것이다. 왜 갑자기 1935년의 시점에 호동왕자의 이야기가 조명을 받기 시작했는지는 짐작하기 힘들다. 다만 이 짧은 개괄만으로도 호동왕자가 20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선인들에게 익숙한 인물이 아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즉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는 ‘1,700년’ 동안 한국문학사에서 면면히 전승되어온 이야기이기보다는 근대에 와서야 비로소 대중에게 소개되고 이야기로서의 생명을 얻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20세기 초에 한국에 소개된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보다도 훨씬 낮설고 젊은 주인공이었다.

본고는 이 젊은 주인공으로서 등장한 호동이 각각의 작가와 시대를 관통하며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당겨 말하자면, 호동은 윤백남을 거치면서 비로소 죽음을 초월하는 낭만적 연인의 성격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태준과 유치진을 통과하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화신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우리가 호동에 대해 알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들은 바로 이 특정한 작가들의 실천을 통해서야 비로소 만들어졌던 것이다.

2. 윤백남, 이국취미로서의 역사

호동왕자의 이야기가 최초로 문학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월간야담』 1935년 7월호에 「정열의 낙랑공주」라는 야담이 발표되면서 부터이다. 『월간야담』은 1934년 10월에 윤백남이 발행한 잡지로 “알팍한 現代文明으로서 두툼한 朝鮮在來의 情緒”²⁾를 추구할 것을 표방하고 있었다. 즉 잡지라고 하는 근대적 출판매체를 통해 ‘조선적인 것’을 보급하고 유통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윤백남은 뒤이어 “우리의 이저진 아름다운 愛人”을 야담 속에서 찾아보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 때 “조선재래의 정서”는 이미 사라진 아름다움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컨대 『월간야담』에서 조선, 과거, 역사 등은 소멸해가는 것을 미적으로 바라보는 근대인의 시선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모습을 드러내었다.³⁾

이러한 『월간야담』의 성격을 염두에 둘 때, 「열정의 낙랑공주」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는 ‘역사’는 “현재의 필수불가결한 전사(前史)”⁴⁾보다는 과거를 낭만화하는 일종의 이국취향의 대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열정의 낙랑공주」와 「순정의 호동왕자」에 나타나는 호동왕자와 낙랑공주는 이룰테면 『을지문덕』처럼 민족적 영웅을 소환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⁵⁾ 또한 충(忠), 효(孝), 열(烈), 의(義)와 같은 전통적 인간관의 지배 아래 있지도 않다. 이 두 편의 이야기에서 호동은 우선 야심만만한 계략가로 나타났다가 후에는 연인을 잃고 상심한 남성의 형상을 띠고 나타난다. 이는 『삼국사기』나 『조선상고사』 등의 역사서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으로, 문학자로서의 윤백남의 상상력이 가미된 부분으로 이

2) 윤백남, 「권두언」, 『월간야담』 1934.10.

3) 고은지는 『월간야담』이 지니고 있는 ‘조선적인 것’을 근대적 미의식과 관련시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고전부흥운동을 비롯한 조선학 연구의 열풍에 의해, 대중적 관심이 민족의 역사로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야담이라는 오래된 형식이 새로이 유행하게 된다고 설명한다(고은지, 「1930년대 오락물로서 역사의 소비」, 『대중서사연구』 제 19호, 대중서사학회, 2008).

4)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옥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99, 76쪽.

5) 구한말 역사전기소설이 지니고 있는 민족주의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승윤, 「근대 역사담론의 형성과 소설적수용」, 『대중서사연구』 제 15호, 대중서사학회, 2006을 참조

해할 수 있겠다. 이전의 역사서술에서 호동왕자이야기의 핵심 대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여름 4월에 왕자 호동이 옥저로 놀러 갔을 때 낙랑왕 최리가 나왔다가 그를 보고서 묻기를 “그대의 안색을 보니 비상한 사람이구나, 어찌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겠느냐? 하고는 마침내 함께 돌아와 딸을 아내로 삼게 하였다. 후에 호동은 귀국하여 몰래 사람을 보내 최씨 딸에게 말하였다. “만약 너의 나라의 무기고에 들어가 북과 빨피리를 찢고 부수면 내가 예로써 맞이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절할 것이다.”⁶⁾
- (나) 호동이 외가에 가는 순로에 낙랑국을 지날 새, 최리가 출행하다가 맛나복 놀내어 갈오대 『그대의 얼굴을 보니 옛지 북국 신왕의 아들 호동이 아니냐』 하고 드대어 호동을 다려다가 그 딸과 결혼하더라. 낙랑국의 무고에 고각이 잇서 소리가 멀리 들임으로 외적이 잇스면 대양 이것을 울니어 제 속국의 군병을 불으거늘, 호동이 그 안해 최녀를 췌이여 『고구려가 낙랑을 침입하는 췌에 네가 그 고각을 업시하라』 하고 귀국하여 대주유왕을 권하여 낙랑을 치더라.⁷⁾

이 이야기를 윤백남은 두 편으로 나누었다. 「열정의 낙랑공주」는 낙랑정 북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며 「순정의 호동왕자」는 호동이 후에 의붓어머니의 모략으로 인해 죽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렸다.

「열정의 낙랑공주」는 호동왕자가 옥저 땅에 사냥을 갔다가 낙랑왕 최리를 만나는 대목에서 시작하고 있다. 도입부에서 호동은 숲에 엎드려 최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최리의 말에 돌을 던져 놀라게 한 다음 몸을 드러내 날뛰는 말을 진정시킴으로써 용맹을 뽐내고 최리의 환심을 산다. 그리고 낙랑의 궁궐에 잠입해 자명고를 수색하다가 낙랑공주가 자신을 사모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일부러 그녀에게 접근하며 음모를 꾸미게 된다. 이 때 호동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여성을 이용하고 사지로 내모는 잔인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윤백남의 『대도전』에 나오는 무릉과 같이 영웅협객의 형상을 띠고 있기도 하다.

6) 김부식, 정국복 옮김, 『(譯註)三國史記. 2: 번역편』 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90쪽.

7) 신채호, 단재 신채호 편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1: 역사 朝鮮上古史』,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290~291쪽.

「백룡아 어디 네 발을 한번 시험해볼까?」 말등에 올라 안저서 갈기를 한번 두들기고 소년은 숨해서 나섰다. 「자!」 소년이 한번 발로서 말배를 찰때에 말은 우렁찬 우름소리를 내고 발로 땅을 찻다.⁸⁾

위와 같은 묘사는 소년 호동이 지니고 있는 담력과 무용을 강조하고 있는데, 일신에 재능을 지닌 이 소년 영웅은 정복이라고 하는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신의 도덕률을 배신하고 있다.

이 상주를 두고 한참을 묵묵히 생각하던 왕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반갑기는 반갑다. 그러나 너는 이뒤 낙랑공주를 어떻게 하려느냐,
왕자는 대답지 못하였다. 마음에 먹은바 생각은 잊지만 그대로 복주할지 어쩔지 주저하였다.
「아녀자를 농락한 네 책임은 어찌하려느냐」⁹⁾

왕이 죄를 추궁하자 호동은 낙랑 정복 후에 공주를 비로 맞이하겠다는 대답으로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호동의 악행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어찌되었건 호동은 자신의 행위가 “아녀자를 농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때 성공(정복)을 욕망하는 왕자 호동과 “결혼하고 나니 나날이 새 안해에게 대한 애정”¹⁰⁾이 생겨버린 호동은 분열된다. 성공과 애정 사이의 번민이 호동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순정의 호동왕자」는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 호동은 낙랑 정복을 완수했지만 공주는 처참하게 죽게 되었고 이 때문에 “웨 그러온지 세 상만사가 구천코 기픈 산에 들어가서 도나 닥그며 일생을 보내고”¹¹⁾ 싶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호동은 공주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빠진 나머지 야망을 잃고 자신을 태자로 책봉하려는 아버지의 권유를 만류하기에 이른다. 그의 의붓어머니가 경계심을 느껴 호동을 없앨 구실을 생각하고 있을 때, 그는

8) 윤백남, 「정열의 낙랑공주」, 『월간야담』 1935.7, 3쪽.

9) 윤백남, 「정열의 낙랑공주」, 『월간야담』 1935.7, 13쪽.

10) 윤백남, 「정열의 낙랑공주」, 『월간야담』 1935.7, 9쪽.

11) 윤백남, 「순정의 호동왕자」, 『월간야담』 1935.8, 6쪽.

이미 죽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의붓어머니가 호동이 자신을 육보이려 했다고 모함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달려 낙랑공주의 무덤에 달려가 얼어 죽는다. 이 정사(情死)의 모티프는 사실 윤백남의 발명으로 『삼국사기』에는 호동의 죽음과 낙랑공주가 어떠한 관련도 없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¹²⁾

이 두 편의 아담에서 고구려의 낙랑정복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현재를 성찰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으며, 현재와 어떤 인과적 연결고리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인물상은 전통적이거나 계몽적 가치를 체현하고 있지도 않다. 과거는 다만 소년 영웅의 호기로운 모험과 빛나간 애정의 비극적 결말의 배경으로만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사실 과거를 이해하는 태도라기보다는 고의적으로 과거를 낯설게 만드는 일종의 ‘이국취미’가 투사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게오르그 루카치는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왜 역사물이 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성향이 어떻게 이국취향과 관련되는지 설명한 적이 있다.

역사적으로 전래되는 외적 사건들과, 인물들의 현대화된 심리 사이의 균열로 인해 사회적·역사적 사건이 내적 의미를 상실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바로 역사적 환경에 대한 이국취미가 성립되는 것이다. 즉 주관주의적 공동화로 인해 자신의 내적 위대성을 상실한 역사적 사건은 다른 수단으로 인해 사이비 기념비성을 획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면 현대의 시민생활의 왜소성으로부터 도망치고자

12) 이 부분에 대한 『삼국사기』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왕비는 [그가] 계승권을 빼앗아 태자가 될까 염려하여 왕에게 ‘호동이 저를 예로써 대접하지 않으니 아마 저에게 음행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고 참언하였다. 왕은 ‘당신은 남의 아이라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오’라고 하였다. 왕비는 왕이 믿지 않는 것을 알고 화가 장차 자신에게 미칠까 염려하여 울면서 ‘칭킨대 대왕께서는 몰래 살펴주십시오. 만약 이런 일이 없다면 첩이 스스로 죄를 받겠습니다.’고 고하였다. 이리하여 왕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호동에게] 죄주려 하였다. 어떤 사람이 호동에게 ‘당신은 왜 스스로 변명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다. [호동은] 대답하였다. ‘내가 만약 변명을 하면 이것은 어머니의 악함을 드러내어 왕께 근심을 끼치는 것이니, [이것을] 어떻게 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칼에 얼어져 죽었다.” 위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호동의 죽음 부분에서 낙랑공주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김부식, 정구복 옮김, 『(譯註)三國史記: 2: 번역편』 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91쪽).

하는 열망, 바로 이것이 이와 같은 역사적 주제를 산출시켰기 때문이다.¹³⁾

야망의 화신이자 절망한 연인으로서의 호동의 “현대화된 심리”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사건들은 그 위대성을 상실한 채 다만 그 환경에 대한 이국취미의 대상으로 전락했는데, 이러한 과거의 식민지화는 “현대의 시민생활의 왜소성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촉발되었다. 역사소설 속의 역사가 대중에게 “현재의 전사로서 의미를 가지는 진지하고 엄숙한 시공간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대와 욕망이 투사된 오락적 공간”이 된다는 주장¹⁴⁾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가리키고 있다.

이상미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다시 한 번 날아오르기를 희구하던 것이 1936년의 일이다. 바로 이 시점을 전후하여 역사소설, 야담, 역사극, 신민요 등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적 형식들이 유행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근대는 삶의 조건을 급진적으로 해체하는 가운데, 근대 이전 시공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즉 근대적 변화와, 변화 이전 상태에 대한 향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¹⁵⁾

유명한 신민요 작사가이자, 후에 『국민문학』의 편집자를 맡기도 했던 김종환은 향수를 자극하는 형식은 근대인이 지니고 있는 ‘시대감’에 의해 불러일으켜진다고 날카롭게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現代人에게는 郷土는 없다. 그들은 永遠한 「보헤미안」이다. 그들의 郷愁는 郷土에 대한 郷愁가 아니라, 時代感의 反動으로 일어나는 永遠에 대한 郷愁다. 「인테리」 아닌 民衆은 「不安」이니 토스카(世界苦)니 하는 術語는 몰라도 몸소 그것을 체험한다. 즉 김종환에게 향수의 발생은 근대적 조건들이 현재를 장악했다는 증거

13)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욱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99, 272쪽.

14) 김종수, 「1930년대 신문 연재 역사소설의 서사관습」,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 2권, 이론과 실천, 2009, 168쪽.

15) “시대의 급격한 변화는 노스탤지어를 널리 스며들게 한다. 혁명적인 급격한 변화는 현재와 과거를 분리시켰다. (...) 산업화와 강요된 이민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는 너무나 다른 지역으로 내몰렸다. 파괴적인 변화로부터 몸을 숨기고 싶었던 낭만주의자들은 이전 시간들의 기억 혹은 발명된 이미지들에서 위안을 얻었다. 노스탤지어는 막연한 불안의 조짐이지만, 그것은 또한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미덕들을 지니고 있다.” (테이비드 로웰던, 김종원·한명숙 옮김, 『과거는 낯선 나라다』, 개마고원, 2006, 54쪽; 426쪽).

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⁶⁾ “알팍한 現代文明으로서 두툼한 朝鮮在來의 情緒”를 포착할 것을 희망했던 윤백남은 곧이어 이 조선재래의 정서가 “이 저진 아름다운 愛人”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미 사라진 것으로서 과거를 파악하고, 또한 그것을 그리워하는 태도는 김종한이 설명한 “時代感의 反動”을 적절히 예시하고 있는 듯하다.

『삼국사기』와는 전혀 다른 호동이 이 시기에 소개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호동은, 근대에 대한 반동, 혹은 위안으로서 나타났던 것이다.

3. 이태준, 역사서사의 식민지적 양의성

호동왕자가 근대를 초극하려는 낭만적 의지에 의해 소환되었다는 설명은 주로 이태준의 『왕자호동』에 적용되어왔다. 즉 “자식이기를 거부하고 한(漢)민족이기를 부인하면서 사랑을 추구”하는 낙랑공주의 모습에서 “절대적 대상에 대한 몰입”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현실적 비극을 외면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기대 심리이며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심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위안을 삼는” 현상이라는 것이다.¹⁷⁾ 이러한 해석은 이태준의 민족주의자로서의 면모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즉 낭만적 초극이 “한민족의 재발견과 민족성 회복이라는 심정적 민족주의와 충의”¹⁸⁾로 이어지거나 “죽음을 통해서 낭만적 사랑을 성취한다는 아이러니적 방식을 이용해 내서널리즘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자발적으로 순응하여, 한(韓)민족 의식과 일체감을 느끼는 동시에 일본의 군국주의에 저항/순응하는 상상적 일체감”¹⁹⁾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낭만성을 경유하여 민족정신을 표현하려 했

16) 乙巴素, 「新民謠의 精神과 形態」4, 『朝鮮日報』, 1937.2.13.

17) 이명희, 「『황진이』와 『왕자호동』의 역사소설적 의미」, 『이태준 문학 연구』, 깊은샘, 1993, 392쪽.

18) 이명희,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적 요소의 만남」, 『왕자호동』, 깊은샘, 1999, 299쪽.

19) 진영복, 「네이션(Nation)의 서사학과 낭만성」, 『대중서사연구』 제 15호, 대중서사학회, 2006, 193쪽.

다는 것은 식민지시기 역사소설에 부여되는 가장 일반적인 설명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왕자호동』에 나타나는 역사적 정황과 그 의미는 조금 더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태준이 『왕자호동』을 연재했던 1942년은 일본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를 함락시킨 해였다. 당시 조선은 충격에 휩싸였으며, 모운숙의 「호산나 소남도」나 노천명의 「싱가폴 함락」 등과 같이 문학적 차원의 승진보가 거듭 창작되었다. 또한 『왕자호동』이 연재되었던 『매일신보』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였다. 승전의 열기가 채 가라앉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과 소설 발표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이 작품은 단순히 조선 민족의 억눌린 ‘민족의식’을 역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으며, 오히려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판도를 조선의 옛 역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묘사하는 작품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다 고구려군은 그와 반대였다. 애초부터 낙랑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낙랑을 다스리는 한인들을 미워하는 것이었다. 이곳의 땅과 이곳의 백성을 공연히 달려들어 차지하고 저희 마음대로 권도를 퍼나가는 한인이 애초부터 원수인데다가 고구려를 쳐나왔던 한나라 본국의 육십만을 한목 격멸하지 못한 분풀이까지 이 낙랑 한인들에게 갚으려는 기세였다.²⁰⁾

『왕자호동』 안에서 고구려군은 한(漢)족을 몰아내는 해방군의 성격을 띠고 있다. 윤백남의 야담에서, 그리고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 낙랑이 고구려 주변의 고대국이었다면, 이태준의 『왕자호동』에서 낙랑은 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리는 한나라의 중앙정부와 낙랑군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활용해 토착세력화한 한족 관리로 나오고 있다. ‘낙랑국’이 ‘낙랑군’으로 바뀌면서 호동왕자의 이야기는 외지의 세력에게 동족이 지배받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게 되었다. 식민지로 전락한 옛 동포의 강역은 “백성들의 집은 하나 집 같은 것을 못 보았고 백성들의 얼굴은 하나 활기 띤 것을 못”²¹⁾ 볼 정도로 궁핍해졌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이 ‘영미귀족’에 의해 신음하고 있는 아시아를 해방하고 ‘대동아

20) 이태준, 『왕자호동』, 깊은샘, 1999, 254쪽.

21) 이태준, 『왕자호동』, 깊은샘, 1999, 207쪽.

공영권' 건설을 주장했음을 염두에 둘 때, 『왕자호동』 안의 고구려는 미처 해방되지 않은 아시아를 해방시키는 일본 제국의 상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호동이 '서자'라는 설정이 이등국민으로서의 '조선인'의 위치를 상징한다고 가정해 볼 때²²⁾, 낙랑 해방의 서사는 동아시아 해방에 상상적 차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등국민으로서의 콤플렉스를 해소하려는 시도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왕자호동』이 순전히 천황제 군국주의를 옹호하는 친일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구려와 낙랑, 그리고 호동이 맺고 있는 공적 관계는 분명 당시 '대동아 전쟁'에 대한 알레고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혐의를 벗기 힘들다. 그러나 호동과 낙랑공주, 소읍별과 호동의 친모가 맺고 있는 사적 관계는 앞서 말한 공적 관계를 서사적 차원에서 뒤돌고 방해하고 있다.

낙랑정복이라는 전쟁을 수행하는 인물들이 '멸사봉공'이라는 일본 군국주의의 가치를 수행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호동은 국민국가가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민의 특징을 고루 갖춘 인물이다. 호동은 사랑을 희생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임금을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누르는 멸사봉공의 자세를 보여준다.²³⁾ 호동을 보좌하는 여성인물인 소읍별 역시 호동과 나라를 위해 몇 번이고 자신을 위협에 몰아넣으며, 빈번히 강간과 살해의 위협에 처한다.

그런데 호동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신을 '멸'하며 '봉공'의 자세로 투신하는 것은 단순히 '충'과 '효'의 가치를 잘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호동이 한사코 '사'의 영역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가장 내밀한 인간관계의 영역으로부터 배신당한 외상적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왕자호동』에서 호동의 친모는 대무신왕의 왕비의 투기심 때문에 살해당했다. 그러나 호동은 자신의 친모가 애육에 휩싸여 남자와 함께 다른 나라로 달아난 것이라 오해하고 있다.

“계집? 계집은 천하고 말고!”

22) 정중현,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5, 106쪽.

23) 정중현,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5, 105쪽.

호동은 버럭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그리고 밀어놓았던 술잔을 당겨 다시 한 잔을 마시더니 더 높은 소리로

“계집은 고약한 것이다!”

하고 눈을 부릅떴다. 그러나 부르뜨는 호동의 눈에는 완연 눈물이 글썽해지는 것이었다.

왕비의 손에 애달피 그러진 어마마마를 끝내 강차란 놈과 달아난 줄만 아는 때문이었다.

(…)

“내 어머니는 대왕을 배반하고 이 자식을 이렇듯 어엿치 못하게 만들고 전 고구려 왕실에 천추의 치욕을 끼친 계집이란다. 그러나 내 어머니다. 그 계집이 내 어머니다. 불행히 이놈의 어머니인 것이다. 그 계집의 죄를 속힐 사람은 그 계집의 자식인 이 호동인 것이다. 고구려를 위해 제물이 되고 싶은 심정은 이 호동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

호동은 얼굴을 푹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호동님의 마음을 그다지 아프게 찢러 드린 것은 아무리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읍별은 몸을 바수고 싶게 송구하였다.

“이 불민한 것을 죽여줍소서.”

“아니다. 내가 아직 미련해, 내 생각만 했던 것이다.”

하고 호동은 칼을 뽑고 그 손으로 읍별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나라를 위해 충성하여라.”²⁴⁾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는 결연한 명령은 호동이 어머니의 배신으로부터 받은 충격에서 기인하고 있다. 호동이 “고구려를 위해 제물”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사’의 영역을 위해 “대왕”과 “고구려”를 비롯해 자기 자신까지 버리고 달아난 “어미”의 죄를 속죄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충격적 사건은 호동으로 하여금 열성적으로 전쟁에 뛰어들게 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깊은 혐오를 심어놓는다. 호동은 계속하여 “계집은 천한 것”이라고 외치는데, 이러한 여성혐오증은 주변여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의녀는 고운 얼굴이었다. 가름한 턱 뺨·안 이마 가느스름하게 흐른 눈모 도둑한 코 어느 것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게 하는 것인지 가려낼 수는 없으나 아무튼 전체가 이쪽 마음을 찢러 놓는다.

‘여자란 저렇게 고운 건가? 여자란 이다지 남자의 마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지? 아니 여잔 나쁜 거다! 배덕하는 거다! 망은하는 거다!’하고 호동은 문득 자기

24) 이태준, 『왕자호동』, 깊은샘, 1999, 90쪽.

어머니를 생각하고 불쾌한 생각이 터졌다.²⁵⁾

호동은 낙랑 여성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감탄하다가 급작스럽게 “여잔 나쁜” 것이라며 불쾌한 생각을 터트린다. 호동은 소년으로서 자연스럽게 여성의 매력에 이끌리게 되지만 어머니가 남긴 외상은 그가 정상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든다. 그가 낙랑공주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것은 우선 그녀가 적국의 공주라는 이유가 크지만 그 배후에는 이렇게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혐오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호동을 연모하는 남장여인인 소읍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읍별은 고구려가 낙랑군에 앞서 현도군을 공략할 때 공을 세운 소장군의 무남독녀이다. 그녀는 아들의 몫을 대신하기 위해 무술과 말타기를 익혔으며, 남장을 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호동을 보좌하고 있다. 호동은 소읍별을 무척 아끼고 있는데 두 사람의 사이에는 일종의 성적 긴장이 흐르고 있다.

읍별은 호동의 주량을 당할 수가 없었다. 주시는 잔을 강잉히 피할 수도 없어 나중에는 취기를 이기지 못하여 숨소리가 가빠지면,

“사나이로 나서 술에 그처럼 약하던 말이냐?”하고 옆에 눕기를 허락하였다. 읍별은 자기 처소로 물러가려 하나 호동은 읍별의 손을 이끌어 자기 곁에 눕혔다. 호동도 읍별이가 좋았다. 점점 좋아졌다. (...) 읍별은 마지못해 얼굴을 돌리라는 대로 돌렸다.

“너 무슨 귀고리를 그런걸 달었느냐?”

읍별은 가슴이 뜨끔한다.²⁶⁾

호동이 소읍별이 여자라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읍별이 지닌 여성성이 호동에게 어떤 호감을 불러 일으켰음은 짐작할 수 있다. 즉 여성혐오로 인하여 여성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호동은, 남장을 한 소읍별을 통해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호동은 소읍별을 거둬 사지로 내모는 모습을 보여준다. 우

25) 이태준, 『왕자호동』, 깊은샘, 1999, 167쪽.

26) 이태준, 『왕자호동』, 깊은샘, 1999, 86~87쪽.

선 소읍별에게 한인의 복장을 하고 군영에 침투할 것을 명했으며, 훗날 공주에게 서신을 보낼 때도 낙랑 땅에 잠입시킨다. 그 때 마다 소읍별은 살해와 강간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듭 그녀를 사지로 내모는 호동의 심리는 ‘여성혐오’가 무의식적으로 발현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필연적으로 낙랑공주의 목숨을 앗아갈 음모를 꾸미는 심리 또한 여성에 대한 복수라는 무의식적 욕망의 발현으로 읽힐 수 있다.

이러한 호동의 여성혐오는 후에 어머니와 함께 달아난 것으로 믿고 있던 ‘강차’를 사로잡아 모든 진실을 듣고 나서야 해소된다. 호동은 어머니를 죽인 왕비가 자신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저항을 포기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 때 호동은 “지존하신 임금과 만년대업의 나라”를 위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자결하겠다고 고한다. 그런데 호동에게 단검과 말을 가져다주어 자결을 돕는 이가 소읍별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호동은 소읍별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였지?”라고 묻는다. 호동이 사랑을 주고받은 여인(어머니, 낙랑공주, 소읍별) 중 소읍별은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인데, 바로 이러한 여인의 손을 빌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속죄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호동은 어머니에 대한 혐오 때문에 한 여성을 살해하고 나머지 한 여성은 거의 죽음에 이르게 했었다. 이제 오해가 풀리게 되자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의 뜻으로 자결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호동의 국가에 대한 충성은 ‘사’의 영역에서 비롯된 외상으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호동의 충성심은 자신의 왜곡된 심리를 반영하여 주변 여성인물들을 상처주고 살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왕자호동』은 멸사봉공의 미학을 서사적 차원에서 발현하는 작품이기 보다는 어떻게 ‘사’의 영역이 소멸되지 않고 ‘봉공’을 방해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추동하는 힘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지점은 호동왕자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정치성에 의해 침윤되기 시작한 징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윤백남에 의해서 근대에 소개된 호동은, 본래 소년 영웅이자 상심한 연인으로서의 낭만적 면모를 지니고 있었으나 이태준을 통과하며 비로소 국가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는 호동왕자 서사 자체의 역사에서 뚜렷한 전환점이었다.

그런데 호동왕자가 지닌 역사·정치적 알레고리는 대상과의 가지런한 대응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희는 『왕자호동』을 독해하며 “한사군 설치의 일제의 침략으로, 낙랑을 위시해서 한(漢)인에 좌우되는 속국들은 친일자”로 이해했다.²⁷⁾²⁸⁾ 반대로 정종현의 논지를 따라 호동의 서자라고 하는 지위를 ‘이등국민’의 상태의 표현으로 인정한다면²⁹⁾, 대무신왕을 비롯한 고구려는 제국 일본이 되며, 한나라는 영미제국, 낙랑을 비롯한 한(漢)사군의 땅은 서구에 의해 식민지가 되어버린 동아시아 제국(諸國)이 된다.

즉 이태준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역사속의 인물과 공간들을 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자리에 배치했다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호동을 호명하고 있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부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애매모호함 가운데에 마련해놓았다.

4. 유치진,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남성성의 회복

비록 모호한 양의성을 포함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태준의 『왕자호동』은 호동왕자에게 민족적 영웅이라고 하는 성격을 부여했다. 호동왕자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호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태준이 비로소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 상태에서 내셔널리즘의 발현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민족=국가’의 가지런한 합치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민족영웅은 한민족과 일본 제국 양자의 알레고리가 될 수 있는 불확정성을 내부에 간직하게 된다. 이러한 미정성이 제거되는 것은, 바야흐로 해방이 이루어진 후 건국의 환호 아래에서 이다.

유치진은 1930년대 중반 “과거를 말하는 것은 드디어 그것은 현재를 말

27) 이명희,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적 요소의 만남』, 『왕자호동』, 1999, 309쪽.

28) 하지만 이러한 민족주의적인 함의를 지닌 소설이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다고 믿기란 쉽지 않다. 만약 이 해석이 옳다면 이태준은 대중들에게는 ‘한민족의 기상’을 북돋아주고 『매일신보』를 비롯한 식민권력에게는 무해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소설을 썼던 셈이다.

29) 정종현,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5, 106쪽.

하는 것이요 현재를 비판하는 것”³⁰⁾이라 선언하며 역사극의 유행을 이끌었다. 그 때 쓰여진 「개골산」, 「춘향전」 등의 작품은 “검열과 상연금지라는 제도를 비껴갈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었지만, 작품 속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재현하는 역사극의 외장은 대중적 취향을 추수하면서 애초의 의도가 휘발되어”버린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³¹⁾ 이 때 「자명고」는 식민지적 검열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호동왕자, 나아가 ‘역사’가 더욱 정치적으로 진유되는 양상을 보여준 사례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치진이 새로 해석한 호동왕자는 지금껏 보아온 서사 중 가장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깊숙하게 침식되어 있다. 윤백남의 호동왕자가 연인을 잃고 슬픔에 잠긴 낭만적 정조를 보여주었고, 이태준의 호동이 어머니의 배신 때문에 상처 입은 소년의 면모를 지니고 있었다면, 유치진의 호동왕자는 ‘사’의 영역이 완전히 제거된 국가의 대리인(agent)이다.

「자명고」에서도 낙랑은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왕자호동』에서 최리가 한나라 사람이었던 것에 반해 「자명고」의 최리는 조선인이다. 즉 『왕자호동』에서 최리가 조선을 점령하고 있는 이민족의 형상을 취하고 있었다면, 「자명고」의 최리는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매국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매국노에 대한 분노는 서사 전체를 휘감고 있다.

- 호동** 행! 제 창자를 팔아먹는 놈이 무슨 소린들 못하겠느냐?
박수 그 무슨 말씀이요?
호동 늙은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일꼬?
박수 예?
호동 그 말이 어디 말이나 말이요?
박수 조선말이지요.
호동 분명히 그렇소?
박수 예. 분명히 어머니의 젖줄기를 빨며 배운 조선말이지요.
호동 그러면 그 귀한 말로서 늙은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소? 최리가 세우

30) 유치진, 「역사극과 풍자극」, 『조선일보』, 1935.8.27.

31) 문경연, 「1930년대 한일 역사극의 담론지형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52쪽.

는 저 비석이 한나라를 위하여 천년이고 이 땅덩어리와 같이 여기에 백
혀 있기를 빌었지?³²⁾

호동은 조선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는 무당을
엄하게 꾸짖는다. 여기서 같은 민족의 피는 숭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호동은 “우리와 같은 피를 받은 족속”이라 무당을 설득하며 낙랑왕 최리가
있는 곳을 심문한다.

민족주의의 화신으로서의 호동의 성격은 낙랑공주와의 사랑 또한 이데올
로기의 차원으로 환원시켜버린다. 『삼국사기』와는 다르게 호동은 최리를
암살하려 접근하다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다. 낙랑공주는 호동의 남자
다운 기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몰래 옥에 들어가 호동과 이야기하며
감화 받는다.

호동 울소 고구려의 탓이오 고구려가 앞장 서서 이 강산 이 하늘 밑을 새빨
간 피로 물들이고 있소 진실로 우리는 이 수십년 동안에 많은 피를 흘
렸소 하지만, 앞으로도 더많은 피를 흘릴 터이오 되놈에게 좀백힌 이
강토가 바로잡힐 때까지는 끊임없는 피가 흘러야 할 것이오 이미 우리
는 고구려 사나이로 계집이오 할것없이 모조리 죽을 각오를 하고 있
소 제 몸뚱아리가 열토막 스무토막이 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찾고야 말 것이오.

공주 나라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중략…)

공주 아아, 그런 나라! 그런 백성이 보고 싶소 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이 눈으로 한번 보고 싶소³³⁾

호동의 애국심에 감명 받은 낙랑공주는 “이 금수강산을 오랑캐의 입에
들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으며 아버지에게 대항한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어 자명고를 찢게 된다.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실로
「자명고」의 주인공으로서,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모든 행동은 그 자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32) 유치진, 「자명고」, 『유치진전집1』, 서울에대출판부, 1992, 325쪽.

33) 유치진, 「자명고」, 『유치진전집1』, 서울에대출판부, 1992, 347~348쪽.

식민지시기 친일행적 때문에 반민특위에 회부되었던 유치진의 경력을 생각할 때, 이 과도한 민족주의의 노출은 친일문인으로서의 과거를 덧칠하고 민족주의자로 거듭나려는 시도로 이해할만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민족주의의 강조가 호동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낙랑공주는 적국에 사로잡혔지만 기개가 꺾이지 않는 호동왕자에게 반해 감옥을 찾아가게 된다. 그리고 자신에게 구애하는 한나라 장수 장초를 버리고 호동에게 연심을 표한다. 한편 호동은 처음에는 장초에게 사로잡혔지만, 이후에는 전쟁터에서 장초를 잡아 죽여 복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호동 서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장초’의 등장은 「자명고」가 식민지시기 억눌린 ‘남성성’을 회복하기 위한 서사임을 강하게 암시한다. 호동은 식민관료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그의 손으로부터 사랑을 쟁취하며 우월한 남성성을 드러낸다. 낙랑공주의 죽음으로 극이 끝을 맺으며, 호동왕자 서사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호동의 자살 부분을 다루지 않는 것은 이 고조된 남성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강화된 남성성’은 지금까지의 호동이 지니고 있었던 다른 측면, 즉 사랑의 영역을 억압함으로써만 획득되는 것이다. 호동과 낙랑공주의 만남에서 인간적인 애욕은 사건의 진행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호동과 낙랑공주의 행동들은 오로지 민족과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질 뿐이다. 이러한 양상은 오히려 『왕자호동』보다도 훨씬 군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멸사봉공’의 미학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비롯된 식민지시기가 아니라 해방기의 문학작품 안에 더욱 노골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5. 글쓰기와 과거의 축조

지금까지 1935년에서 1948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호동왕자의 서사가 탄생하고 변천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호동은 1930년대 중반 근대화의 아절

한 질주 가운데 그 반대편을 향수 어리게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탄생했으며, 이윽고 식민지 후반기 제국의 동원논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민족/제국’ 양자에 봉사하거나 저항하는 영웅으로 재탄생했다. 그리고 해방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민족주의의 화신으로 거듭났던 것이다. 불과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호동의 이미지는 숨 가쁘게 변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호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은 ‘1,700년’ 동안 자연스럽게 전승되어온 것이 아니라 1935년부터 서로 다른 방향에서 생산된 표상들이 축적된 것이다. 호동의 성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은 현재의 역사적 맥락이 변화할 때마다 과거가 새로 구성되기 때문인데, 이는 역사를 비롯해 ‘민족적 표상’들이 언제나 재해석되고 재배치 될 수 있는 유동적인 존재라는 점을 암시한다. 예를 들어 ‘낙랑’은 고구려 주변의 국가였던 낙랑국이었던다가, 한사군 중 하나인 낙랑군이 되고, 다시 낙랑군이 토착화한 낙랑국이 되기도 한다.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에서 낙랑은 옥저와 예맥과 같은 토착 세력 중 하나로 설명되었으며, 실제로 대무신왕의 재위기간은 서기 4년에서 44년 사이로 낙랑군이 멸망한 313년과는 상당한 시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³⁴⁾ 이 시간적 차이를 고의로 무시하는 방식으로, 호동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소환되는 것이다.

제임스 클리포드에 따르면 민족에 대한 지식들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 글쓰기는 거짓말 속에서 진실을 구축하고 있다.³⁵⁾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일 때, 호동은 원작(『삼국사기』)에 없는 내용을 생산하고, 혹은 존재하는 것을 삭제해가며 민족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일군의 실천들이라 할 수 있겠다. 20세기에서 시작한 호동의 역사는 근대가 어떻게 과거와 기억을 직조해내는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34) 김창룡, 「고구려의 문학(III)-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애산학보』 15집, 애산학회, 1994.

35) 제임스 클리포드, 이기우 옮김, 『문화를 쓴다』, 한국문화사, 2000, 26쪽.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월간야담』, 『조선일보』

김부식, 정구복 옮김, 『(譯註)三國史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안정복,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국역)東史綱目』, 민족문화추진회, 1984.

신채호, 단재 신채호 전집편찬위원회 편, 『단재 신채호 전집, 1: 역사 朝鮮上古史』,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유치진, 『자명고』, 『유치진전집1』, 서울에대출판부, 1992.

이태준, 『왕자호동』, 깊은샘, 1999.

2. 논문과 단행본

고은지, 「1930년대 오락물로서 역사의 소비」, 『대중서사연구』 제 19호, 대중서사학회, 2008, 191~224쪽.

김중수, 「1930년대 신문 연재 역사소설의 서사관습」, 『대중서사 장르의 모든 것』 2권, 이론과 실천, 2009, 149~171쪽.

김창룡, 「고구려의 문학(III)-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애산학보』 15집, 애산학회, 1994, 131~183쪽.

문경연, 「1930년대 한일 역사극의 담론지형 고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47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0, 31~58쪽.

이명희, 「역사적 사실과 이야기적 요소의 만남」, 『왕자호동』, 깊은샘, 1999, 299~311쪽.

_____, 『황진이』와 『왕자호동』의 역사소설적 의미, 『이태준 문학 연구』, 깊은샘, 1993, 390~405쪽.

이승윤, 「근대 역사담론의 형성과 소설적 수용」, 『대중서사연구』 제 15호, 대중서사학회, 2006, 121~160쪽.

정중현, 「제국/민족 담론의 경계와 식민지적 주체」,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5, 97~130쪽.

진영복, 「네이션(Nation)의 서사학과 낭만성」, 『대중서사연구』 제 15호, 대중서사학회, 2006, 163~196쪽.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옥 옮김, 『역사소설론』, 거름, 1999.

데이비드 로웰던, 김종원·한명숙 옮김, 『과거는 낮은 나라다』, 개마고원, 2006.

제임스 클리포드, 이기우 옮김, 『문화를 쓴다』, 한국문화사, 2000.

Abstract

The Modern Representations of Prince Hodong stories

Yu, In-Hyeok (Dongguk University)

What this study aims is to analyze that how the stories of Prince Hodong are represented in modern historical fictions. The stories have been reproduced in many forms such as TV dramas, films, fictions, plays. It can be depicted that the narratives are indeed national and popular. Interestingly, however, the description of Hodong has not been found in pre-modern documents or fictions. The story began to appear and became popular in 1935 by Yoon Baek Nam. It can be explained that the narratives are the one of the example of the invented tradition since it became visible in modern period.

Yoon, Lee Tae Joon, and Yu Chi Jin have constructed the character of Hodong what we are familiar with. Yoon depicted Hodong as a romantic lover with the motif of a lovers suicide. Lee and Yu put a context of nationalism by explaining Nakrang as a Nakrangkun of Hansagun(the four colonies of China). These are pure invention of the writers which cannot be found in The History of Three Kingdoms(三國史記).

These character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surrounding of their own society. Yoon shows how the past can be seen as a nostalgic object by modern aesthetic perspective. Lee illustrates the ambiguous thought of a colonial intellectual who (anti)internalizes the ideology of militarism. Yu tries to find the way to recover the muscularity of the nation by re-colouring the memory of the past. These, the representations created in various contexts, make our common knowledges of Prince Hodong nowadays.

(Keywords : Prince Hodong, Princess Nakrang, Yu Chi Jin, Yoon Baek Nam, Lee Tae Joon, History, Nostalgia, Nationalism, Muscularity, Writings, Collective memory, Yadam, Historical fictions, Historical plays.)

투고일 : 2011년 10월 14일 투고

심사일 : 2011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1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1년 12월 10일 게재확정